

태국어의 /θu:k/ 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통사구조및 의미특징의 분석

윤 경 원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수동구문을 구성하는 어휘 *qñ/θu:k/*의 형태적 특성
3. *qñ/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통사적 특성
4. *qñ/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의미적 특성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1.1 연구목적 및 범위

현대언어학 이론의 발전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수동구문이었다. 전통문법에서도 능동문과 수동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 수동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Harris(1957)는 능동문과 수동문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변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Chomsky (1965)의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수동 현상의 설명을 위해 심층구조와 표면구조 및 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변형생성문법의 한 갈래인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이 생겨난 것도 수동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능동문과 수동문의 관계가 문법 관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강사

쟁과는 별도로 그 둘 간의 관계가 통사 부문에 표현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휘부에 표현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을 둘러싸고 어휘론자들의 주장이 대두된다¹. 어휘론자들의 주장은 능동과 수동의 각 동사는 변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어휘부에서 생성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Bresnan 1978). 이 밖에도 격문법(Case Grammar)과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도 그들 나름의 이론들을 가지고 수동현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태국어의 수동 현상도 이와 같은 이론적 기초에 힘입어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명되었다. 이것은 태국 언어학의 입장에서 볼 때 커다란 발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각기 제나름대로의 이론의 틀에 태국어 수동구문의 한 면만을 부각시켜 연구한 것에 그친 점도 없지 않다. 이 글에서 살펴보자 하는 내용은 태국어의 수동구문 중에서 그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고 따라서 전형적인 수동구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ຖົ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ຂົມຍ	ຖົນ	ຕໍ່ຮຽວຈ	ຈັບ
/kʰamoj/	/thu:k/	/tam ruat/	/cap/
(the)thief	[Pass V] ²	police	catch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예문 (1)과 같은 태국어의 수동구문에 대해서 ຖົນ/thu:k/을 이 문장의 본동사로, 그리고 하위 구조를 절로 규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증거를 예시하여 위의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ຖົ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장들과 다르게 분석해 보겠다.

1.2 선행연구

¹ 국어의 수동구문에 대해서도 이기동(1978), 배희임(1988), 우인해(1997) 등은 통사부문 즉 문법관계에 의해 수동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향천(1991) 등은 수동의 의미가 어휘부에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² 여기서 ຖົນ/thu:k/을 Pass V(Passive Verb 수동동사)로 표시한 것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ຖົນ/thu:k/을 수동동사로 보지 않았다.

태국어의 **ຖ**/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태국어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수동구문으로서 이 수동구문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분석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1 변형문법을 사용한 분석 방법

이 분석방법은 차이야랏따나(1961) 등의 변형문법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2), (3)의 태국어 수동구문을 분석하기 위해 (4)와 같은 기저문을 가정하였다.

- (2) **ໄ** **ຖ** **ມ** **ຕ**
 /kaj/ /thu:k/ /mε:/ /ti:/
 Kai [Pass V] mother beat
 까이가 어머니에게 매맞았다.

- (3) **ໄ** **ຖ** **ຕ**
 /kaj/ /thu:k/ /ti:/
 Kai [Pass VI] beat
 까이가 매맞았다.

- (4) **ມ** **ຕ** **ໄ**
 /mε:/ /ti:/ /kaj/
 mother beat Kai
 어머니가 까이를 때렸다.

위의 예문 (2)에 대응하는 능동구문은 예문 (4)이다. 변형문법을 사용한 분석방법에서는 수동구문과 능동구문이 같은 기저구문을 갖는다. 기저문에서 수동구문을 만들기 위한 변형과정(목적어의 상승과 주어의 하강)을 거치며,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삭제규칙(deletion rule)을 적용한다

(예문 (3)에서와 같이 행위자(Agent)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위자를 삭제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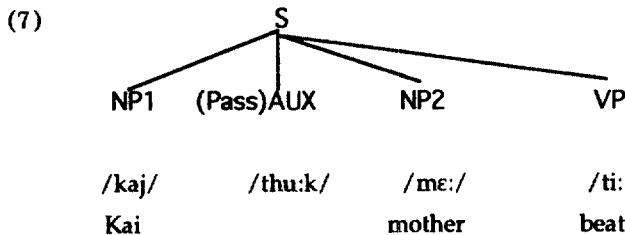
이와 같은 분석은 태국어 모국어화자들의 언어적관에 적합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동구문은 동일한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 능동구문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³.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 그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1.2.2 조동사 분석 방법

이 분석은 와룻따마센톱(1975) 등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그가 예문(5), (6)의 수동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기저구조는 (7)이다.

- (5) ໄຟ ຖົກ ໝ່າ ຕີ
 /kaj/ /thu:k/ /me:/ /ti:/
 Kai [Pass V] mother beat
 까이가 어머니에게 매맞았다.

- (6) ໄຟ ພົກ ຕີ
 /kaj/ /thu:k/ /ti:/
 Kai [Pass V] beat
 까이가 맞았다.



³ 수동문과 능동문이 항상 같은 진리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양화사가 사용된 수동문의 경우 해당 능동문과 다른 진리값을 갖는다. 여기서는 같은 진리값을 갖는 수동문과 능동문만을 의미한다.

이 분석에서는 수동구문이 능동구문과 별개이며 조동사로 쓰인 *qn/θu:k/*을 가진 고유의 기저구문을 갖는다. 여기서 사용된 유일한 규칙은 예문 (6)을 위한 불특정 행위자를 삭제하기 위한 삭제규칙이다. 이 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qn/θu:k/*을 조동사로 볼으로서 태국어의 문법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3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또한, 차이야랏따나(1961), 텅러(1972), 와롯파마썩카딧(1972), 레카왓따나(1980) 등의 학자들은 태국어의 *qn/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 대해서 '안내킴(adversati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⁴. 즉, *qn/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사용되는 동사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화용론적인 측면에서의 제한도 포함된다⁵. 위의 예문 (5)는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사용된 예이다. 동사 자체는 좋지 않음의 의미가 없지만 *qn/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 됨으로서 안내킴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8) ໄກ ສົນ ແຕງ ເສີມ
 /kai/ /θu:k/ /dɛ:ŋ/ /cʰə:n/
 Kai [Pass VI] Daeng invite
 까이는 땅에게 초대당했다.

만일 태국어 수동구문이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갖는 동사에만 사용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음의 의미가 전혀 없는 오히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초대받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위 예문 (8)과

⁴ 이 글에서는 '안내킴'이라는 개념을 수동자(Patient)의 입장에서 볼 때 '즐겁지 않은, 좋지 않은, 내키지 않는,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글에서 행위자(Agent), 수동자(Patient)의 정의는 영어학사전(1990)을 따른다.

⁵ 이 때의 동사는 하위문의 동사를 의미하며 화용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이란 수동구문을 이루었을 때 그 수동구문이 가지는 의미는 항상 '안내킴'의 의미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수동구문은 비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정문이며 태국인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그 초대가 수동자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내키지 않는 것이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것이 화용론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을 말한다. 그렇다면 **gn/thu:k/**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수동문들은 위에서 언급한 주장대로 모두 안내침의 의미만을 갖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4 장에서 살펴보겠다.

2. 수동구문을 구성하는 어휘 '**gn/thu:k/**'의 형태적 특성

2.1 어휘 **gn/thu:k/**의 분석

태국어에서 **gn/thu:k/**이라는 어휘는 자동사, 타동사, 부사 그리고 형용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겠다.

1) 자동사로 쓰인 **gn/thu:k/**

gn/thu:k/이 자동사로 쓰일 경우 그 의미는 "...에 닿다, ...와 접촉하다, 명중하다, 적중하다, ...에 맞다, ...에 어울리다, ...에 적합하다" 등이다. 예문을 보겠다.

(9) ການປິບຕີ	ອຍ່ານນັ້ນ	ດູກ	ກວດມາຍ
/ka:n pa ti bat/	/ya:ŋ nan/	/thu:k/	/kot ma:j/

behavior such justify law
그러한 행동은 합법적이다.

(10) ສອງ	ຄນ	ນັ້ນ	ໄນ	ດູກ	ກັນ
/sɔ:ŋ/	/kʰon/	/nan/	/maj/	/thu:k/	/kan/

two [Clf] that [Neg] match with
그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11) ເພື່ອນ	ຜມ	ດູກ	ລອດເຫດຊີ
/pʰian/	/pʰom/	/thu:k/	/tɔ:tteri:/

friend I win lottery

내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다.

- (12) งาน นี่ ถูก นิสัย ของ ผู้
 /ga:n/ /ni:/ /θu:k/ /ni saj/ /kʰɔ:gj/ /pʰom/
 work this accord disposition of I
 이 일은 내 성격에 맞는다.

2) 타동사로 쓰인 ถูก/θu:k/

ถูก/θu:k/이 타동사로 쓰일 경우 그 의미는 '때리다, ...을 맞추다 (명중시키다)'이다. 예문을 보자.

- (13) ครู ตี ถูก ศรีษา ของ เด็ก
 /kʰru:/ /ti:/ /θu:k/ /si:saj/ /kʰɔ:gj/ /kʰaw/
 teacher hit hit head of I
 선생님이 나의 머리를 때렸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ถูก/θu:k/이 '때리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 ถูก /θu:k/ 이 흔히 쓰이기보다는 같은 '때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ตี /ti:/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4) ผู้ ยิง ถูก เป้า
 /pʰom/ /yin/ /θu:k/ /paw/
 I shot hit target
 나는 과녁을 맞혔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ถูก/θu:k/이 '...을 맞추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ถูก/θu:k/ 흔히 쓰이기보다는 '쏘다, 발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3) 부사로 쓰인 ຖ່ວ/θu:k/

ຖ່ວ/θu:k/이 부사로 쓰일 경우에 그 의미는 '옳바르게, 정확하게, 맞게' '등의 의미를 갖는다.

(15) ໄກ ຕິດ ຖ່ວ ເສມອ
/kaj/ /kʰit/ /θu:k/ /sa mə:/

Kai think right always
까이는 항상 옳바르게 생각한다.

(16) ອາຈາຮຍ ນອກ ໄນ ຖ່ວ
/?a:ca:n/ /bo:k/ /maj/ /θu:k/

teacher tell not correct
선생님께서는 말을 잊지 못하셨다.

(17) ເຫຼາ ຕັດສິນໄຈ ໄນ ຖ່ວ
/kʰaw/ /tat sin caj/ /maj/ /θu:k/
he decide not right
그는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었다.

4) 형용사로 쓰인 ຖ່ວ/θu:k/

ຖ່ວ/θu:k/이 형용사로 쓰일 경우 그 의미는 '옳바른, 정확한, (값이) 찬' 등의 의미를 갖는다.

(18) ໄກ ພີ ຄວາມຕິດ (ທີ) ຖ່ວ ເສມອ
/kaj/ /mi:/ /kwa:m kʰit/ (/thi:/) /θu:k/ /sa mə:/
Kai have thought ([REL]) right always
까이는 항상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 ເຫຼາ ຕອບ ຜຳຕອບ (ທີ) ຖ່ວ
/kʰaw/ /tɔ:p/ /kʰam tɔ:p/ (/thi:/) /θu:k/
he answer (an) answer ([REL]) correct

그는 정확한 답을 하였다.

- (20) ໄກ ອຢາກ ຈະ ສົ່ງ ຂອງ ຖູກ
 /kaj/ /ya:k/ /ca/ /si:/ /k'ɔ:g/ /thu:k/
 Kai want will buy thing cheap
 끼이는 저렴한 물건을 사기를 원한다.

2.2 수동구문의 ຖູກ/thu:k/과 능동구문의 ຖູກ/thu:k/ 사이의 유사성

두 경우의 ຖູກ/thu:k/이 의미자질면에서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2.2.1 비의도성

ຖູກ/thu:k/은 득림적인 능동동사로서 사용되며 그때의 의미는 '때리다, 강타하다, 견드리다'이다.

- (21) ສຸກນອລ ຖູກ ໄກ ທີ ພັກ
 /lu:k bɔ:n/ /thu:k/ /kaj/ /thi:/ /hua/
 ball hit Kai at head
 공이 까이의 머리를 때렸다.

- (22) ໄຕັບນ ຖູກ ມືອງ ອໍຍ້າງແຮງ
 /tajfun/ /thu:k/ /miaŋ/ /ya:ŋ re:ŋ/
 typhoon hit city hard
 태풍이 도시를 강타했다.

- (23) ໄກ ຖູກ ມີອ ດັນ
 /kaj/ /thu:k/ /mi:/ /c'an/
 Kai touch hand I

까이가 나의 손을 건드렸다.

본동사로서 **gn/thu:k/**을 사용한 능동문에서 주어는 비의도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해석되어진다. 아래 예문 (24)에서 만지는 행위는 비의도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 (24) **ເຫັນ ຖູກ ໜັງ ໄກ**
 /kʰaw/ /thu:k/ /hua/ /kaj/
 he touch head Kai
 그가 까이의 머리를 건드렸다.

수동구문에서의 **gn/thu:k/** 역시 이러한 비의도성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수동구문에서의 수동자 주어는 보문절에서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되어졌다'로 해석된다.

- (25) **?ໄກ ພູກ ຮອ ຂອນ ບໍຕ ເຫັນ ໄມ ຕັ້ງໄຈ**
 /kaj/ /thu:k/ /rot/ /cʰon/ /te:/ /kʰaw/ /maj/ /taŋ
 caj/
 Kai [Pass V] car hit but he not
 intend
 ?까이는 차에 부딪혔으나 그는 비의도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능동문에서의 **gn/thu:k/**과 수동구문에서의 **gn/thu:k/**은 의미자질면에서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2.2 안내침의 의미의 함축

gn/thu:k/이 능동동사로 사용되었을 때 그 행위는 어느 정도 그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을 텅러(1952), 윙비아삿(1980) 등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절대적인것으로 간주한다.

- (26) **ສຸກນອດ ພູກ ໄກ ສີ ໜັງ**

/lu:k bɔ:n/ /thu:k/ /kaj/ /thi:/ /hua/

ball hit Kai at head

공이 까이의 머리를 때렸다.

(27) ໄກ ຖົກ ມີອ ຈັນ

/kaj/ /thu:k/ /mi:/ /cʰan/

Kai touch hand I

까이가 나의 손을 건드렸다.

이들은 때리는 동작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 문장은 여전히 수동자에 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함축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태국사회에서 ໜ້າຍິນ/nam yen/'cold water'은 기쁜 것,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은 안내킴의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다.

(28) ນໍາ ເຢັນ ຖົກ ໜຳ ໄກ

/nam/ /yen/ /thu:k/ /na:/ /kaj/

water cold strike face Kai

찬 물이 까이의 얼굴에 맞았다.

이상에서는 동사 ຖົກ/thu:k/이 사용된 능동구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수동구문의 ຖົກ/thu:k/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안내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수동구문에서는 보문절에서 표현되는 행동으로부터 기쁘지 않은 혹은 비정상적인 결과를 수동자가 받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문 (29)에서는 ໄກ/kaj/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예문 (30)은 그 책이 비정상적인 처분을 당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29) ໄກ ຖົກ ແມ່ນ ກົດ e

/kaj/ /thu:k/ /ma:/ /kat/

Kai [Pass V] dog bite
까이는 개에게 물렸다.

(30) ໜັງສືອໂປະ ດຸກ ລົມ ລົມ
/naŋ si: po/ /thu:k/ /yit/
porno book [Pass v] confiscate
음란서적이 압수당했다.

안내킴(adversative)의 의미는 보문절의 동사보다는 동사 *gn/thu:k*/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보문절의 동사가 *ເຮັດ/riak*/'call for', *ເຄື່ອນ/kʰlian*/'move' 같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neutral)인 의미를 갖는 동사인 경우도 그 수동구문의 의미는 여전히 좋지 않은 영향을 함축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 (31), (32)를 보자.

(31) ໄກ ດຸກ ລົມ ເຮັດ ລົມ
/kaj/ /thu:k/ /riak/
Kai [Pass V] call for
까이가 불리워졌다.

(32) ໜັງສືອ ດຸກ ລົມ ເຄື່ອນ ລົມ
/naŋ si:/ /thu:k/ /kʰlian/
book [Pass V] move
책이 옮겨졌다.

요약하면 능동구문이나 수동구문에 사용된 *gn/thu:k*/은 두 경우 다 안내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능동구문일 경우의 안내킴의 의미의 함축과 수동구문일 경우의 안내킴의 의미의 함축은 단지 능동구문일 경우 그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수동일 경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3.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통사적 특성

이 글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 대해서 전통적 분석인 *gn/thu:k*/을 조동사로 보는 분석방법 대신에 *gn*

/thu:k/을 본동사로 보고 그 하위 구조를 절로 보는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gn** /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란 아래의 (33)과 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을 말한다. 이 구문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NP₁은 동사의 행위에 대한 수동자이다.

(33) NP₁ + gn + NP₂ + V + X

3.1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하위절의 통사적 특징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NP₁과 공지시되는 하위절의 NP가 공백일 수도 있고 공백이 없을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예문을 들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3.1.1 NP₁과 공지시되는 하위절의 NP가 공백인 경우

하위절에 NP₁과 공지시되는 NP가 공백인 경우로서 그 예문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4) ໄା ກນ ແມ ຕ້ອຍ ບ

/kaj/ /thu:k/ /me:/ /tɔ:j/

Kai [Pass V] mother hit

까이는 어머니에게 매맞았다.

(35) ໄା ກນ ບ ຕ ບ

/kaj/ /thu:k/ /t̪i:/

Kai [Pass V] beat

까이는 매맞았다.

- (36) ໄກ ຖຸກ ຕໍ່ຮ້າຈ ພຶດ ວິທຸກ ທີ່ e ພິມ
 /kaj/ /thu:k/ /tam ruat/ /yit/ /wi tha yu/ /thi:/ /yim/
 Kai [Pass V] police confiscate radio [REL] borrow
 ມາ ຈາກ ພົດ
 /ma:/ /ca:k/ /pʰo:/
 come from father
 까이는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라디오를 경찰에게 압수당했다.

- (37) ໄກ ຖຸກ ຕໍ່ຮ້າຈ ພຶດ ວິທຸກ ທີ່ ແດງ ໄກ e
 /kaj/ /thu:k/ /tam ruat/ /yit/ /wi tha yu/ /thi:/ /deŋ/ /haj/
 Kai [Pass V] police confiscate radio [REL] Daeng give
 까이는 땅이 준 라디오를 경찰에게 압수당했다.

위의 예문들에서 문법적 주어인 NP₁은 하위절의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수동자이다. 그리고 NP₂는 뒤에 오는 하위절 동사의 행위자이다. 위의 예문 (35)와 같은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수동구문에서 NP₂는 불명확하다. 동사 ຖຸກ/thu:k/ 뒤에 나타나는 절을 보문절(complement clause)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수동구문에서는 NP₁과 공지시 되는 NP가 보문절에 나타나야 한다. 이 공지시 NP는 보문절의 동사의 의미상적 목 혹은 간 목이 될 수 있으며 또는 대명사의 형태로 표면에 나타나거나 의미적으로 함축되어 나타난다.

또한 소유격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NP 가 NP₁과 공지시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8) ໄກ ຖຸກ ຕໍ່ຮ້າຈ ພຶດ ວິທຸກ (*ຂອງ ເຫັນ)
 /kaj/ /thu:k/ /tam ruat/ /yit/ /wi tha yu/ (/kʰɔŋ/ /kʰaw/)
 Kai [Pass V] police confiscate radio of he
 까이는 (그의)라디오를 경찰에게 압수당했다.

- (39) ໄກ ຖຸກ ຂໍມອງ ສິນ ນໍານ (*ຂອງ ໄກ)
 /kaj/ /thu:k/ /ka mo:j/ /kʰin/ /ba:n/ (/kʰɔŋ/ /kaj/)
 Kai [Pass V] thief enter house of Kai
 까이는 도둑에게 (자신의)집을 털렸다.

위의 예문에서는 NP₁(끼이)과 공지시되는 NP가 하위절 목적어의 소유격 형태이다. 이 예문에서도 하위절의 목적어의 수식구에 나타나 있는 NP가 주절의 주어 NP₁과 공지시됨으로 생략된다.

3.1.2 하위절에 NP의 공백이 없는 경우

만일 청자가 상위문의 주어인 수동자와 하위문의 목적어 사이의 "특별한 관련성"을 연상할 수 있다면 목적어 위치에 혹은 목적어를 수식하는 구나 절에 공지시 NP가 의미적으로 조차도 나타나지 않아도 수동구문이 성립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0) ໃໝ່ ຖົກ ຜູ້ຮ້າຍ ສັກຕົວ ແຕງ
 /kaj/ /thu:k/ /p'u:ra:j/ /lak tua/ /de:ŋ/
 Kai [Pass V] kidnapper kidnap Daeng
 끼이는 유괴범에게 땅을 유괴당했다.

위 예문 (40)에서 보문절의 동사 ສັກຕົວ /lak tua/'kidnap'는 하나의 주어와 직.목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NP₁과 공지시되는 NP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예문 (40)에서는 구나 절에 의해 수식된 목적어도 없다. 예문 (40)은 매우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만일 화자가 ໃໝ່/kaj/와 ແຕງ /de:ŋ/이 어떤 관계인지 혹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은 대부분의 태국어화자들에게 정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면 ແຕງ /de:ŋ/이 ໃໝ່/kaj/의 아내이거나, ໃໝ່ /kaj/와 ແຕງ /de:ŋ/이 사랑하는 사이이거나 등등의 경우이다.⁶

3.1.3 NP₁과 공지시되는 NP가 하위절에 나타나는 경우

⁶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것을 정문인 수동구문으로 간주한다.

아래 예문 (41)은 공지시된 NP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타난 문장으로서 생략되지 않고 표면에 나타나 있다.

- (41) ໄກ ຖຸກ ຕໍ່ມຽນ ທີ່ມ ວິທາຍູ ໄປ ຈາກ ເຂົ້າ
 /kai/ /thu:k/ /tam ruat/ /yit/ /wi tha yu/ /paj/ /cak/ /kʰaw/
 Kai [Pass VI] police confiscate radio go from he
 까이는 경찰이 그로부터 라디오를 압수해 가는 것을 당했다.

대부분의 화자들은 공지시된 NP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41)의 예문과 같은 문장들은 공지시된 NP가 생략되지 않고 곁으로 들어나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정문으로 받아들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예문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볼 때 태국어의 *gn* /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 있어서 하위절의 NP는 생략될 수도 있고 표면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 있어서 하위절의 NP가 필수적으로 생략되어야 하는 통사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서 하위절에 공백이 있었으며 상위문의 주어와 이 공백은 의미적으로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공백이 없는 경우라도 문장의 주어는 하위절의 어떤 요소와 통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⁷. 이러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태국어의 *gn* /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2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새로운 분석

이 글에서는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서 *gn/thu:k/*을 이 구문의 본동사로 간주하고 이어지는 연쇄체-대부분은 NP VP의 형태를 취한다-를 절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분석방법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 글에서의 분석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설명하겠다. 먼저 *gn/thu:k/*을 조동사로 보는 분석방법

⁷ 채희락(1998)은 한국어의 tough-구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석하였다. 태국어의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하위문에서의 공백도 한국어의 tough-구문의 하위문에서의 공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것을 참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채희락(1998) 참조.

의 적절하지 못한 점을 살펴보겠다.

와룻따마센롭(1975)은 (44)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구구조 규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44)로 부터 (45)의 규칙을 추정해 낼 수 있다.

(42) ໄກ ຖູກ ມີ ຕິ
 /kaj/ /thu:k/ /me:/ /ti:/

Kai [Pass V] mother b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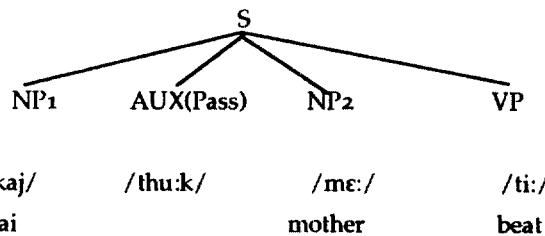
까이가 어머니에게 맞았다.

(43) ໄກ ຖູກ ຕິ
 /kaj/ /thu:k/ /ti:/

Kai [Pass V] beat

까이가 맞았다.

(44)



(45) S → NP AUX NP VP

위와 같은 분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와 같은 규칙은 태국어에 있어서는 특수한(ad hoc) 구구조 규칙이다. 왜냐하면 VP와 AUX사이에 NP가 삽입된 구조는 태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조동사와 본동사가 사용된 구문에서는 의문문에 대

한 답으로 조동사만 나오거나, 조동사와 본동사가 같이 나오거나, 또는 본동사만 나오기도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46) ຖុន ឃូក ិន ឆ្កាហ ឲម
/kʰun/ /ya:k/ /kin/ /kʰaw/ /maj/
you want eat rice [Interrogative]
당신은 밥을 먹고싶습니까?

- (47) ឃូក ិន
/ya:k/ /kin/

- (48) ិន
/kin/

- (49) ឃូក
/ya:k/

예문 (46)은 '원하다'의 뜻을 갖는 조동사 ឃូក /ya:k/을 사용한 의문문으로서 그 궁정의 답은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ឃូកិន/ya:k kin/ , ិន /kin/ 또는 ឃូក /ya:k/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동사와 본동사가 같이 사용된 의문문에서는 그 궁정의 답으로 본동사는 흔로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ឲន/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을 보자.

- (50) ឆ្កា ឲន ចំណ ហើយ
/kʰaw/ /thu:k/ /cap/ /ri:/
he [Pass V] catch [Interrogative]
그는 잡혔나요?

- (51) ឲន ចំណ
/thu:k/ /cap/

- (52) ឲន
/thu:k/

(53) *캡

/cap/

예문 (50)은 수동구문이 의문문이 되었을 경우 만일 이 문장에서 캡/cap/이 상위문의 본동사라면 그 긍정의 답으로 캡/cap/이 훌로 쓰일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53)에서처럼 비문이 된다. 따라서 캡/cap/은 이 문장의 본동사가 아니고 따라서 캡/θu:k/이 이 문장의 본동사라는 증거가 된다.

3.3 [캡/θu:k/ + S] 구조의 타당성

이 글에서는 캡/θu:k/ 다음에 오는 연쇄체를 절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대한 타당성을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증거를 들어 입증하고자 한다.

3.3.1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구문들과의 통사구조 비교

이 글에서는 캡/θu:k/을 본동사로 보고 그 이하를 캡/θu:k/이 취하는 보문절로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의 타당성을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구문들과 비교함으로서 입증해 보고자 한다. 아래 예문들을 보자

(54) ໄກ ซื้อ ขนม กิน
 /kaj/ /si:/ /kʰa nom/ /kin/
 Kai buy cake eat

끼이는 과자를 사먹었다.

(55) ໄກ เขิญ แตง เลี้ยง
 /kaj/ /cʰə:n/ /dɛ:g/ /liay/
 Kai invite Daeng banquet

까이는 땅을 초청해서 대접했다.

위의 두 예문은 $NP_1 + V_1 + NP_2 + V_2$ 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 구문에서 주어는 NP_1 이며 V_1 이 타동사로서 뒤의 NP_2 가 그것의 목적어이며, V_2 도 역시 타동사로서 NP_2 가 그것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위 예문들은 아래 예문 (56)과 같이 두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간주한다. 즉, 예문 (95)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56) ໄା ສି ଖନମ +	କାଇ କିନ ଖନମ
/kaj/ /si:/ /kʰa nom/	/kaj/ /kin/ /kʰa nom/
Kai buy cake	Kai eat cake
NP ₁ VP ₁ NP ₂	NP ₁ VP ₂ NP ₂

위 예문 (54), (55)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 내부구조가 상이한 아래 예문들을 살펴보자.

(57) ໄା ଲେ ମିଟ ତାତ କରାଦାତ
/kaj/ /cʰaj/ /mi:t/ /tat/ /kra da:t/
Kai use knife cut paper
까이는 칼을 써서 종이를 잘랐다.

(58) ଡାଙ ଆ ମିଟ କନ ମାଙ
/dɛ:g/ /?aw/ /mi:t/ /kʰon/ /kɛ:g/
Daeng take knife stir s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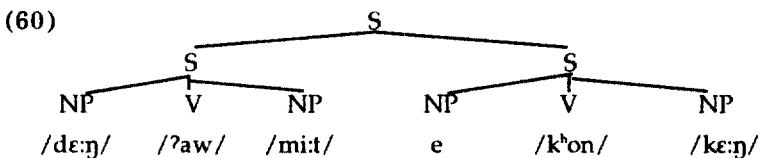
댕은 칼을 가지고 국을 저었다.

위 예문들은 $NP_1 + V_1 + NP_2 + V_2 + NP_3$ 의 구조이다. 위 문장에서 NP_1 이 주어이며 V_1 은 타동사로서 NP_2 를 목적어로 갖고, V_2 도 타동사로서 NP_3 를 목적어로 갖는다. 위 예문들도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다. 예문 (58)을 예로 들어 분석해보자.

(59) ଡାଙ ଆ ମିଟ + ଡାଙ କନ ମାଙ
/dɛ:g/ /?aw/ /mi:t/ /dɛ:g/ /kʰon/ /kɛ:g/

Daeng take knife Daeng stir s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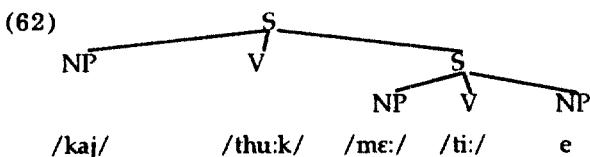
이 구문의 수형도는 아래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어의 문장 중에서 $NP + V + NP + V$ ($+NP$)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있다.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NP + [V + NP] + [V (+NP)]$ 이거나, 또는 $NP + [V + NP + V] (+NP)$ 이다. 그 특징은 위에서 살펴 보았다.

태국어의 q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위에서 살펴본 유사한 형태의 구문들- $NP V NP VP-$ 과는 달리 하위 구조가 절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61) ໄା ອຸ ເມ ຕ ບ
 /kaj/ /thu:k/ /me:/ /ti:/
 Kai [Pass V] mother beat
 까이가 어머니에게 맞았다.



VP_1 의 주어는 NP_1 이고 VP_2 의 주어는 NP_2 이다. 이 구문은 두 구문이 합친 것도 아니며, 어느 것이 생략된 구문도 아니다. 따라서 이 구문의 분석은 $[NP VP + [NP VP]]$ 로 위의 다른 구문들과는 다르게 분석된다.

3.3.2 의문문 변형을 사용한 구성소 분석

qn/thu:k/ 다음에 오는 [NP VP]가 단순한 'NP VP'가 아니라 절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즉,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다.

- | | | | |
|---------------|-------|-----------|-------|
| (63) ก้าว | ซื้อ | ชานม | กิน |
| /kaj/ | /si:/ | /kʰə nom/ | /kin/ |
| Kai | buy | cake | eat |
| 까이는 과자를 사먹었다. | | | |

위의 예문 (63)을 의문문으로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다.

- | | | |
|--------------|-------|----------|
| (64) ՚n | ՚s | ? |
| /kaj/ | /si:/ | /?a raj/ |
| Kai | buy | what |
| 끼이는 무엇을 샀느냐? | | |

위의 예문 (64)는 동사 **↙bə/si:/'buy'** 다음에 나오는 'NP VP'를 하나의 의문사 **↗əls/?'a raj/'what'**로 표현한 의문문이다. 그러나 예문 (64)는 예문 (63)의 하위 구조 'NP VP'를 묻는 의문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동사 **↙bə/si:/'buy'** 다음에 나오는 'NP VP'가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절이 아니라 NP와 VP가 각각 주동사의 자매(sister)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의 예문 (63)과 같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예문 (65)와 같은 의문문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 | | | | |
|----------------|-------|----------|-------|
| (65) ໄກ | ສົ່ງ | ອະໄຈ | ກິນ |
| /kaj/ | /si:/ | /?a raj/ | /kin/ |
| Kai | buy | what | eat |
| 끼이는 무엇을 사먹었느냐? | | | |

반면에 **그는/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그는/thu:k/** 다음의 [NP VP]

가 하나의 구성소로서 한 어휘로 대체되어 의문문으로의 변형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66) ໄກ ຖົກ ໝ່າ ຕີ ດ

/kai/ /thu:k/ /me:/ /ti:/

Kai [Pass V] mother beat

까이가 어머니에게 매맞았다.

(67) ໄກ ຖົກ ອະໄຈ

/kai/ /thu:k/ /?a raj/

Kai [Pass V] what

까이가 어떻게 당했어?

위 예문 (66)을 의문문으로 변형시킨 예문 (67)은 그 답으로 예문 (66)이 가능하다. 그것은 ຖົກ/thu:k/ 다음의 연쇄체 [NP VP]가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는 절이라는 증거가 된다.

3.3.3 ຖົກ/thu:k/ 다음의 [NP VP]구조의 반복 가능성

ຖົກ/thu:k/ 다음의 [NP VP]구조가 절이라는 증거는 [NP VP]가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68) ໄກ ຖົກ ໝ່າ ຕີ ແລະ ພອ ຕໍາ

/kai/ /thu:k/ /me:/ /ti:/ /le/ /pʰɔ:/ /da:/

Kai [Pass V] mother beat and father scold

까이는 어머니에게 매맞고 아버지에게 야단맞았다.

위의 예문은 '까이가 어머니에게 매맞았다'라는 사실과 '까이가 아버지에게 야단맞았다'라는 사실이 연결될 경우 [NP VP]구조가 반복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하위구조가 단순한 'NP VP'의 경우 반

복해서 나올 수 없다. 아래 예문을 보자.

- (69) *ໄା କ୍ଷେ ଖନମ କିନ ଏଲେ ଶେହ ଈର
 /kaj/ /si:/ /kʰ'a nom/ /kin/ /lɛ/ /sia/ /saj/
 Kai buy cake eat and clothes wear
 *까이는 과자를 사먹었고 옷을 사입었다.

위의 예문 (69)은 '까이가 과자를 사먹었다'라는 것과 '까이가 옷을 사입었다'라는 사실을 연결한 것인데 이 경우 위의 예문 (68)과 달리 이것은 비문이 된다. 즉, 'NP VP'가 상위 동사를 생략한 체 반복해서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3.3.4 [NP VP]구조에서 NP의 주제화 불가능

ຖ່າ/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서 ຖ່າ/thu:k/ 다음의 [NP VP]중에 NP만 문두로 도치되어 주제화될 수 없다. 이것은 태국어에서 일반 내포문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래 예문을 보자.

- (70) ໄଆ ຖ່າ ແມ ຕ ລ
 /kaj/ /thu:k/ /me:/ /ti:/
 Kai [Pass V] mother beat
 까이가 어머니에게 매맞았다.

- (71) *ແມ ໄଆ ຖ່າ ຕ ລ
 /me:/ /kaj/ /thu:k/ /ti:/
 mother Kai [Pass V] beat
 어머니에게 까이는 매맞았다.

위의 예문 (71)은 예문 (70)에서 하위절의 NP를 주제화시킨 문장으로 비문이 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태국어에서 내포문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주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 (72) ໄກ ບອກ ວ່າ ແຕງ ອະ ມາ
 /kai/ /bo:k/ /wa:/ /dɛŋ/ /ca/ /ma:/
 Kai tell [COMP] Daeng will come
 끼이는 땅이 올거라고 말했다.

- (73) *ແຕງ ໄກ ບອກ ວ່າ ອະ ມາ
 /dɛŋ/ /kai/ /bo:k/ /wa:/ /ca/ /ma:/
 Daeng Kai tell [COMP] will come
 땅이 까이는 올거라고 말했다.

위의 예문 (73)은 보문소가 이끄는 보문절을 포함하고 있는 예문 (72)에서 보문절 안에 들어있는 '땅'을 문두로 도치시킨 문장으로 이 문장도 역시 비문이 된다. 이것은 ຖນ/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ຖນ/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하위구조 [NP VP]가 절임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 반면에 하위구조가 단순한 'NP VP'인 경우 그 때의 NP는 자유롭게 문두로 도치되어 주제화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74) ຂັນ ໄກ ສີ້ ກິນ
 /kʰa nom/ /kai/ /si:/ /kin/
 cake Kai buy eat
 과자를 까이는 사먹었다.

위의 예문 (74)는 예문 (63)에서 하위구조에 있는 NP를 주제화시킨 문장으로 ຖນ/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과 달리 정문이 됨으로써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ຖນ/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 있어서 ຖນ/θu:k/ 다음에 나타나는 연쇄체가 절임을 알 수 있다.

4. ຖ່າ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의 의미적 특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ຖ່າ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 의미적으로 안내킴의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화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ຖ່າ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진다. 즉, 안내킴(adversati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ຖ່າ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과 안내킴의 의미를 갖지 않는 ຖ່າ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동구문의 화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겠다. 이 두 유형의 수동구문은 통사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포하는 의미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안내킴의 의미를 갖는 ຖ່ານ/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 1) 이것은 유정성 주어를 갖고 보문절에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동사들을 끌라와닛은 [+affected, -factitive]로 나타냈으며 그러한 동사들에는 ໝໍາ /kʰa:/ 'kill', ຈັບ/cap/ 'arrest' 등이 있다.
- 2) 이것은 유정성 주어를 갖고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갖지 않은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동사들은 [+affected, -factitive]가 아닌 동사들이다. 그러나 문맥에 의해 '내키지 않음, 기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다. 윙비아삿(1980)에 따르면 이러한 구문이 안내킴의 의미가 되는 이유는 수동자에 대해서 예외적인(이상한) 혹은 좋지 않은 행동을 예측하고 있고(있거나), 수동자가 내켜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ເຫດຖາວເສີມ/kʰaw//thu:k/ /cʰə:n/ 'He was invited'이라는 문장은 문맥에 따라서 안내킴의 의미가 된다.
- 3) 이것은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함께 나타나며, 비유정성 주어를 가지며, 안내킴의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의 예가 그러한 경우이다.

(75) ໂຄງກາຣ ເສີມຫຼັກ ຂອງ ເຂົາ ໄດ້ ຖ່ານ e ທ້າລາຍ e
 /kʰro:ŋ ka:n//setthakit//kʰaŋ//kʰaw//daj//thu:k/ . /thamla:j/

project economic of he Past [Pass V] destroy
 그의 경제 정책은 파기되었다.

나) 안내킴의 의미를 갖지 않은 ณ/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1) 이것은 비유정성 주어를 가지며 [+affected, -factitive]에 속하지 않는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갖지 않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 2) 이것은 비유정성 주어와 [+affected, -factitive]에 속하는 동사와 함께 나타나지만 문맥에 의해 안내킴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76) 'Histamine' ນີ້ ດະ ຄຸກ ທ່າລາຍ ເພື່ອ 'Adrenalin'

/ni://ca//θu:k//thamla:j/ /do:j/
 histamine this will [Pass V] destroy by adrenalin
 이 히스타민은 아드레날린에 의해 파괴된다.

- 3) 이것은 유정적 주어를 갖고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동사가 사용되며 문맥에 의해 안내킴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보면

(77) ເພີ້ ໄດ້ ຄຸກ ເພີ້ ຢ້າຍ ເມີ້ ມາ ອູ້ ນ້ອງ ໄຫດ້
 /tha:///daj/ /θu:k/ /ya:j/ /ma:/ /yu:/ /hɔ:g/ /yaj/
 she [Past] [Pass V] move hither stay room big
 그녀는 큰 방으로 옮겨 졌다.

위의 분류는 우리가 어느 것이 안내킴의 의미를 나타내는 ณ/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인지, 또는 안내킴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ณ/θ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문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 문맥에 의존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대부분의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은 안내김의 의미를 갖든 안내김의 의미를 갖지 않은 간에 가-1)이나 나-1)에 속하게 된다. 즉, 유정성 주어와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의 동사가 사용된 구문이거나, 또는 비유정성 주어와 (수동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음의 의미가 아닌 동사가 함께 쓰인 형태이다.

5. 맷는말

이상과 같이 태국어의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태국어의 수동구문은 비록 그다지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형태적 통사적 특징을 갖는 구문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분석방법 즉, 변형문법에 의한 분석방법이나 또는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서 *gn/thu:k/*을 조동사로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에 있어서 *gn/thu:k/*을 본동사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 *gn/thu:k/*의 다음에 오는 연쇄체제 -이것은 대부분 NP VP의 형태를 가진다- 를 여러가지 즐거움을 들어 절로 분석하였다. 의미상의 특성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 안내김의 의미만을 가지며 이 구문에 사용되는 동사도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갖는 동사만이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었다. 그러나 여러 예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 활용면에 있어서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 항상 안내김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또 사용되는 하위절의 동사도 좋지 않음의 의미를 갖는 동사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이는 의미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그의 사용(use)의 측면 즉, 화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이 *gn/thu:k/*을 사용한 수동구문이 수동태냐 아니냐의 문제 즉,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적인 특성을 가진 특별한 구문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태국어의 사동구문과 더불어 특별한 통사적인 특성을 갖는 구문임에는 틀림없지만 수동태만을 나타내는 고유한 구문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배희임 (1988) 국어 피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서정수 (1996) 혐대 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 우인혜 (1997) 우리말 피동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기동 (1978) "한국어 피동형 분석의 검토", 인문과학논총 9
전국대학교 .
- 이향천 (1991)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채희락 (1998) "though-구문과 비교구문의 영어-한국어 비교 분석 ",
어학연구 34, 서울대 어학연구소.

- Chaiyaratana Chalao (1961)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Thai syntax.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Chomsky, Noam (1965) *Aspect of Theory of The Syntax*. Cambridge: MIT Press.
- Kullavanijaya, Pranee (1974) Transitive verbs in Thai.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Lekawatana, Pongsri (1970) Verb phrases in Thai: a study in deep-case relationship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Sindhvananda, Kanchana (1970) The verb in modern Thai. Ph. 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Warotamasikkhadit, Udom (1969) Thai syntax: an outlin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 Warutamasintop, W. (1975) Handouts from the Englis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no-Tibetan Language and Linguistics.
- Wongbiasaj, Soranee (1980) On movement transformations in Thai.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ก้าชัย ทองหล่อ,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พิมพ์ครั้งที่ 10.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รวม
สารน, 2540

(Kamchay Thonglaw, Lak phaasaa Thai (태국어 문법). Bangkok. 1997)
นวารรณ พันธุเมธा, ลักษณะ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รุ่งเรืองสารนการ
พิมพ์, 2525

(Nawawan Bandhumedha, Laksana Phaasaa Thai (태국어의 특징).
Bangkok. 1982)

ปราณี คุลลวนิจย์ และคณะ, ภาษาทัศนา. โครงการทำราก ศูนย์อักษรศาสตร์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35

(Pranee Kullavanijaya Paasaa thassanan(언어관) Bangkok. 1992)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ai passive constructions using /thu:k/

Kyoung-Won Yoon

This paper gives a general overview of passive construction using /thu:k/. Also, it attempts to explain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ai passive construction using /thu:k/ from a new perspectiv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 1) How to analyze /thu:k/ that is used in Thai passive expression?
- 2) What ar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passive constructions with /thu:k/?

This paper has concluded that /thu:k/ is passive verb, not auxiliary verb as traditionally has been analyzed, by providing a number of evidence against the traditional view. And /thu:k/ passive construction syntactically involves a complement sentence. Semantically, it has been traditionally thought to have adversative meaning, but it has been shown that it is not restricted to adversative meaning.

<Key Word>

Thai passive constructions using /thu:k/